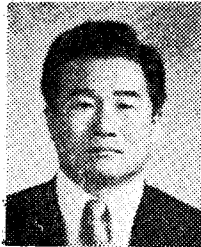


1976년도 축산정책

—안정된 경영과 생산조절에 힘쓰길—



<김 영 진 국 장>

- ... 다사다난하였던 75년은 곡물파동의 여파로 도입곡물의 감축...○
- ...계획에 따라 농후사료 의존가족의 사료조절과 축산물가격 하...○
- ...락으로 곤경에 빠졌으나 업계의 소비증진운동과 정부시책의 뒷...○
- ...받침으로 비교적 호경기를 맞았던 것 같다. 축산물의 수요는...○
- ...국민경제향상과 어느수준까지 비례하므로 급성장하는 소득수...○
- ...준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특히 최근의 석유개발 소...○
- ...식은 더욱 빠른 축산물소비증가를 예견하게 한다. 그리고 폭발...○
- ...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곡물부족에 대응하여 국내사료자원개발...○
- ...이용을 위한 국민의 노력으로 축산업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이...○
- ...특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편집자>○

김 영 진

<농 수 산 부 축산국장>

1. 머릿말

多事多難하였던 75年度の 畜産業界의 한해도 마무리 짓고 이제 새로운 마음 다짐으로 또 한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畜産業界는 73年度 以後 불어닥친 甚한 穀類波動의 餘波로 가장 어려웠던 74年度の 타격을 아물게 하고자 政府는 政府대로 갖은 안간힘을 다 했어야 했고 養畜家들은 養畜家나름대로 74年度の 傷處를 아물게 하고자 努力하여 심하게 下落되었던 家畜의 價格도 회복되었고 飼料의 價格도 比較的 安定되어 태풍후의 高요처럼 지난 한해를 보내게 된 것은 多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75年度는 飼料波動의 餘波로 飼料原料인 옥수수 導入減縮計劃에 따라 濃厚飼料 依存家畜의 飼料調節과 生産費以下로 下落되었던 家畜과 畜産物 價格의 회복을 위해 많은

努力과 施策을 펴온 한해였으며 多幸이도 모든 家畜의 價格은 회복되었고 畜産物의 價格도 上昇되어 오히려 最近 어느해 보다도 養畜家들은 조심성 있는 經營과 초조함속에서 好景氣를 본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지난 2~3年 사이에 있었던 많은 變化와 與件等을 돌이켜 보고 밝아온 새해에 設計를 세워 또 한해의 발걸음을 힘있게 디더야 할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기면 갈수록 결코 평탄한 養畜與件이 持續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國民經濟向上과 더불어 增加一路에 있는 畜産物의 需要를 自給에의 길로 維持하려면 政府나 畜産人들의 負擔은 큰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76年の 畜産施策

가. 畜産物의 需要增加

畜産物의 需要는 國民經濟向上과 어느 수준

까지는 比例하여 增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例外없이 所得의 增加에 따라 늘어나는 畜産物의 需要를 우리는 가볍게 받아넘길 수는 없다.

우선 가까운 日本과 우리나라의 所得과 關係된 畜産物肉類의 消費傾向을 알아보기로 한다.

日本國民이 1人當 國民所得(GNP) 100\$에서 500\$水準까지 到達하는데 10년이 所要되었으며 500\$에서 1,000\$ 到達에는 不過 5년이 所要되었으며 畜産物의 需要增加를 보면 100\$에서 500\$ 到達時期까지인 62년까지의 10年間に 肉類의 消費가 1人當 年間 6.9kg로 倍로 增加하였으나 500\$에서 1,000\$로 到達한 5년에 또한 12kg水準으로 거의 倍로 그 需要가 增加한 것으로 보더라도 國民所得 500\$에서 1,000\$水準時까지의 畜産物의 需要는 놀라울게 增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需要를 살펴보면 國民所得 100\$時인 1965年度의 國民 1人當 肉類消費가 3.4kg에 比하여 500\$所得을 올린 1975年度에는 6.2kg로 倍의 肉類를 消費하게 되는데 10年間이 所要되었는데 앞으로 1,000\$所得水準인 1981年度의 肉類需要의 推定은 12.7kg로 거의 倍에 가까운 增加를 갖어 올 것이다.

이와같은 傾向으로 볼때 過去10年間に 生産供給한 畜産物을 앞으로는 5年間の 同一水準의 物量을 供給하여야 하기 때문에 畜産物의 自給을 위한 基盤確立도 重要한 우리의 課題로 대두되고 있다.

〈畜産物需要〉

區 分	75	76	增加率
草食家畜	牛肉	70,292%	77,331% 10.0%
	牛乳	160,380%	173,387 8.1
濃厚飼料 依存家畜	豚肉	98,848	107,583 8.8
	鷄肉	55,594	58,107 5.4
	鷄卵	2,896百萬個	3,036百萬個 4.8

나. 草食性家畜의 繼續的 增殖

畜産物의 總物量概念으로 볼때 草食家畜에서 生産되는 牛肉은 10% 그리고 牛乳 8.1%로 增加供給해야 할 것이며 濃厚飼料 依存家畜

인 豚肉은 輸出을 감안하여 8.8%로 維持하고 鷄肉과 鷄卵은 4.5~4.8%水準으로 調節해나갈 것이다.

이와같은 需給의 方向은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 찾아볼 수 있다. 世界人口가 현재 38億으로 볼때 年間 2%씩 人口가 增加한다고 하더라도 7千 6百萬名式의 人口가 1년에 늘어나고 있으며 간단히 比較하여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크기의 나라가 年間 2個式 늘어나고 할때 10年이면 20個國이나 增加된다는 計算이고 보면 가공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머지않은 將來에 비록 充分한 外貨를 保有하고 있다 하더라도 飼料用 穀類를 導入할 수 없는 時期가 오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點을 生覺할때 우리도 百年大計의 自給國家로 維持하려면 빠른 時期內에 飼料의 自給基盤을 漸次的으로 構築해야 할 것이며 養畜의 方向도 濃厚飼料依存家畜에서 草食性家畜으로의 基盤擴大를 不可避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今年度에도 去年에 이어 草食性家畜의 增殖을 위한 施策으로서 家畜의 主宗을 이루고 있는 韓牛의 增殖基盤樹立을 위하여 61千頭의 農家入殖을 시키고자 67億의 資金을 放出할 것이며 入殖方法으로는 繁殖牛確保를 위한 育成牛와 增體利用을 目標로한 肥育牛로 區分支援할 計劃이다.

또한 繁殖基盤 擴大를 위하여는 암소의 屠殺禁止 및 年齡未達牛의 屠殺을 嚴格히 禁止 強化해나갈 것이며 韓牛飼育의 集團化를 위한 示範마을 67個所를 造成하여 韓牛飼育의 據點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乳牛에 있어서는 長期的인 眼目에서 經營合理化 農場育成을 위하여 都市근교로부터 地方으로 酪農圈을 이진 擴散할 計劃이며 今年度 新規酪農家造成으로는 第二次 世界銀行 酪農借款으로 1,700頭의 乳牛導入과 國內產 젖소에 依한 第2次年度 入殖事業으로 1,000頭의 젖소송아지 암소를 入殖支援할 것이다.

또한 山地畜産의 開發을 위한 先行으로 濠州와의 技術協力에 依해 緬羊飼育地帶選定을 76年內에 實施할 것이며 특히 養兔에 對하여

는 段階別事業推進計劃에 의해 우선 지난해 外國으로부터 種兔確保를 끝냈으며 今年度에는 各道 種畜場에 種兔場을 增設하여 種兔供給體系를 樹立해 나가는 한편 農村經濟向上에 따른 肉類需要增大를 兔肉으로 代替供給토록하며 副産物로 生産된 兔毛皮는 農畜協系統收賣를 통해 海外에서 輸入하는 兔毛皮를 代替供給해 나갈 것이다.

다. 飼料開發 利用增大

76年度の 總飼料의 需要量은 粗飼料와 濃厚飼料를 合하여 10,183%으로 75년에 比해10%가 增加 需要되며 이와같이 增大되는 飼料需要의 원활한 供給을 위하여는 國內飼料開發利用을 增大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國產飼料開發 利用을 위하여는 75年度에 開發設置한 高구마粉末工場 加동과 養豚團地 中心의 薯糖飼料 增産活用과 아까시아, 槐 잎等 緣飼料의 增産에 依한 糖類飼料를 利用 代替케 하는 한편 海草飼料도 今年度에는 開發活用하는 등 國內産 飼料開發 生産은 勿論 利用方法普及에 힘써 飼料供給의 安定을 期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草食家畜의 飼育基盤擴大를 위하여 5千ha의 草地를 新規로 造成하는 한편 既存草地의 肥培管理 및 不實草地의 補播更新事業은 昨年에 이어 繼續推進하여 養畜家로 하여금 飼料의 自給基盤의 重要性에 對한 認識을 漸次 높혀 나갈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韓牛生飼轉換事業을 繼續推進하기 위한 生飼의 利點指導와 生飼轉換을 위한 乾草 埋草 製造運動을 새마을單位로 強力하 展開해 나갈 것이다.

라. 畜産物 流通開善

앞으로의 畜産振興은 過去와 달라 增殖도 重要하겠으나 그보다 生産된 家畜이나 畜産物의 流通과 價格의 安定의 維持도 重要하므로 이를 위한 流通構造改善에도 힘써 나갈 計劃이다.

지난해에는 家畜價格 安定에 온갖 힘을 傾注하여 生畜의 系統出荷를 農畜協으로 하여금

擴大시켰으며 韓牛價格회복을 위하여는 牛價下落 時期에 政府 韓牛入殖 支援資金을 集中放出하였으며 價格下落時의 集中放賣防止를 위한 融資金의 償還時期 延長等의 施策으로 좋은 成果를 거둔 實績을 거울삼아 時期에 알맞은 施策을 繼續해 나갈 것이다.

또한 豚肉 및 韓牛의 繼續的인 輸出을 增大시켜 海外市場을 確保하겠으며 農畜協에서 直營하는 食肉直賣點 100個所의 增設도 推進하여 安定的 供給은 勿論 消費者 保護에도 힘써 나갈 方針으로 多角的인 施策을 推進해 갈 計劃이다.

3. 맺는말

家畜産業은 결코 수월한 産業은 아니며 우리나라는 特別히 영세한 飼育規模를 免치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이제 걸음마를 댄 程度밖에 成長치 못한 畜産業의 育成은 벱차고 힘겨운 일이지만 養畜家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漸次的으로 規模가 커질 수록 經營을 着實히 하기 위한 基盤確立에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飼料의 自給基盤 確保이며 經營의 合理化로 生産費를 단 몇%라도 낮추어 가는데 成敗가 가려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75年度の 畜産業界는 초조한 속에서도 安定되었었다고 하여 올해에도 그 安定이 持續된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75年度에 好景氣였던 品目이 今年度에도 繼續된다고 樂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自己 能力에 알맞은 經營規模의 維持와 과잉생산에서 오는 價格下落의 不沉이 다시는 안일어나도록 養鷄는 養鷄業者대로 養豚은 養豚業者대로 굳게 結束하여 또 한해의 마무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